**삼하2108 Note**

**Cross check 삼상2544, 삼하0315, 삼상1819**

삼상2544. 그러나 사울이 다윗의 아내인 그의 딸 미갈을 갈림 출신의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느니라,

삼하0315. 이에 이스보셋이 (사람을) 보내어, 그녀의 남편으로부터, 바로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로부터 그녀를 취하니라,

삼상1449. 한데,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였느니라, 그리고 그의 두 딸들의 이름은 이들이었느니라, 첫째의 이름은 메랍이며, 손 아래의 이름은 미갈이니라,

삼상1817. 그리고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니라, 보라, 나의 손 위의 딸 메랍, 그녀를 내가 네게 아내로 줄 것이니라, 오직 너는 나를 위해 용맹해져서, 여호와의 전쟁들을 싸우라, 이는 사울이 말하였음이라, 내 손으로 그의 위에 있게 하지 말고, 대신에 블레셋인들의 손으로 그의 위에 있게 하자,

삼상1819. 그러나 사울의 딸 메랍이 다윗에게 주어졌어야 했을 때에, 이것이 일어나니라 곧, 그녀가 므홀랏인(메홀라티:므할랏 사람,아벨 므흘라의 거민,므할랏 족속)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어지니라,

성 경: [삼하21:8]주제1: [재앙을 극복하는 다윗]주제2: [죽임당한 사울의 후손]

▶ 사울의 딸 메랍 –

메랍(Merab)은 사울의 장녀였으며, 사울이 다윗에게 주기로 하였다가 그 약속을 어기고

아드리엘에게 시집보낸 여인이었다(삼상 18:17-19).

한편 히브리 본문과 흠정역(A.V.)에는 '메랍' 대신 '미갈'(Michal)로 나타나고 있는데,

이는 필사자의 착오이다(Keil, Fay, Smith).

왜냐하면 '아드리엘'(Adriel)의 처는 분명 메랍일 뿐 아니라(삼상 18:19),

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다(6:23).